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522

2009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現代日本語推量表現에 관한 考察

羅 智 賢

2009年 8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現代 日本語 推量表現에 관한 연구

－ そうだ，ようだ，らしい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羅　　智　　賢

Collection @ chosun

現代 日本語 推量表現에 관한 연구

- そうだ，ようだ，らしい　中心으로 -

A Study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in Japanese

2009年 8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羅　　智　　賢

dCollection @ chosun

現代 日本語 推量表現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9年　4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羅　智　賢

Collection @ chosun

羅智賢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　授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　授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　授　　印

2009年　**6**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dCollection @ chosun

目　　次

ABSTRACT ····· ii

제1장. 서론 ····· 1

1.연구목적 ····· 1

2.연구대상 및 방법····· 2

제2장. 선행연구의 개관 및 본고의 입장····· 4

제3장.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용법····· 10

3.1.언어학자의 정의····· 10

3.2.「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用法····· 11

3.2.1.「そうだ」의 用法····· 11

3.2.2.「ようだ」의 用法····· 19

3.2.3. 「らしい」의 用法····· 25

제4장.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상호 比較・分析 ····· 34

4.1. 「そうだ」와「ようだ」····· 34

4.2. 「ようだ」와「らしい」····· 35

4.3. 「らしい」와「そうだ」 ·····38

제 5장. 결 론 ····· 41

參 考 文 獻 ·····43

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in Japanese

Na Jee-Hyun
Advisor : Prof. In-hyun Kim,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general, a senten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rts: a statement and an attitude. A statement is something that you say or write which gives information in a formal or definite way. On the other hand, an attitude to something is the way that you think and feel about it. In the present study, the term, proposition was used instead of a statement. Similarly an attitude was named as modality. There are many ways of expressing modality in Japanese. But we intend to focus on the analysis of inferential expressions in the presents study. Inferential expressions are often used to indicate that something will possibly happen or be true in the future, but speakers cannot be certain. A study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in Japanese seems to be meaningful,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Japanese tend to express their mood indirectly in the inferential expressions related to the future tense. We mainly dealt with a comparision of typical modified auxiliary verbs for inferential expressions such as 'souda', 'youda' and 'rasii' in the present study.

A comparison of there different modified auxiliary verb led us to following conclusions: 'souda' is used to indicate objective opinion on something, while

dCollection @ chosun

‘youda’ is used to express speaker's subjective judgement. A speaker tends to prefer ‘youda’ to ‘souda’, ‘youda’ to ‘rasii’ in order to express the situation or fact on the basis of one's judgment in terms of an inference, compared with ‘rasii’. ‘Rasii’ includes a strong inference based on an objective judgment when ‘souda’ is compared with ‘rasii’. Therefore, ‘rasii’ is frequently used to predict that something will happen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souda’ is not more objective than ‘rasii’ because it include speaker's subjective inference.

The presents study focuses on the grammatical analysis of ‘souda’, ‘youda’ and ‘rasii’ which has such a little different meaning that it can be commonly misused. We cannot assert that the present study clears all misuses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such as ‘souda’, ‘youda’ and ‘rasii’, but contributes toward elucidating their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dCollection @ chosun

dCollection @ chosun

제 1장. 서론

1. 연구목적

推量 조동사라고 불려지는「そうだ」,「ようだ」,「らしい」,「だろう」 등의 推量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神尾昭雄는 전문(伝聞)에 의한 간접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영어와는 달리, 일본어에서는 직접적 표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1)]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大野晋는 일본어의 推量 표현은 영어와 欧米語와 다르게 文末에 위치하며 미래에 대한 표현을 대신하고 있다고[2)]한 것과 같이, 이러한 推量 조동사는 일본어의 시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推量 표현은 일본어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推量 표현 중에 「そうだ」는 상태의 조동사, 「ようだ」는 比況의 조동사,「らしい」는 推定의 조동사로만 언급되고 있어서, 마치 推量의 조동사인「だろう」와는 상관없이 推定의 조동사나 希望의 조동사 등과 같이 별개의 조동사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3)]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ようだ」를 様態의 조동사로 취급하기도 하며, [4)]「そうだ」 「ようだ」 「らしい」모두를 様態의 조동사로 취급[5)]하기도 하는 등 부르는 명칭에 있어서도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推量의 체계는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推量 표현을 나타내는 것들을 종합하여 그들을 推量 조동사라는 테두리 안에 소속시킨 후에 다시 각각의 推量 표현의 특성을 찾아내어 그 기능을 명백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고는 소위 推量 조동사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동시에 각 기능의 특성 또한 함께 분석하여 명시함으로써 欧米語의 표현과 달리 간접형의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들 推量 조동사의 보다 적절한 사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神尾昭雄(1985)談話における視点 『日本語学』4券 明治書院(17p)
2) 大野晋(1987)『文法と語彙』47p~51p
3) 村上本二郎 () 『初歩の国文法』昇龍堂出版132p~140p
4) 渡辺實(1971)『国語構文論』塙書房 113p
5) 松村明 (1971)『文法大辞典』明治書院892p

dCollection @ chosun

2.연구대상 및 방법

일반적으로 「推量」이란, 「断定」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취급되어지기 쉬우나, 다음과 같이 推量에 대해 사전에 기술되어져 있는 정의에서도 「不確実、確ではない」으로 판단하는 의미로만 설명하고 있다.

①表現内容に対する不確かな判断の表現（『日本語百科大辞典』, 金田一春彦編、1995）
②実現していないことや確でないことを予想的にいう言い方（『大辞林』, 松村明編、1988）
③不確実な判断や思想上の事実について、話し手の想像という形で述べる(『日本語文法大辞典』, 松村明編、1996）

「推量」이란, 화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발화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으나,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근거에 의해 그 발화내용이 명제로서 성립될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推量 조동사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う。よう」「らしい」「まい」「みたいだ」「ようだ」「そうだ」「だろう。でしょう」「かもしれない」「にちがいない」가 있는데 이 중에서 推量 表現에 사용되는 모두를 본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고의 연구대상인 推量 조동사의 범위를 우선 설정하고자 한다.
推量 조동사에 대한 범위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매우 다양하다.
吉田章夫(1971)에서는 불확실한 것을 推測하거나 未來나 現在, 過去 모두를 걸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상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조동사로 규정하였으나, 山田孝雄을 비롯하여 森岡健二, 鈴木重幸 등은 조동사를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推量 조동사라는 명칭도 그들의 문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반면, 推量 조동사를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는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時枝誠記(1950)에서는「だろう」를 조동사로 독립시켰으나, 「そうだ」와「ようだ」는 형용 동사를 하나의 품사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dCollection @ chosun

때문에 당연히 조동사에서 제외되었다. 渡辺實 (1971)에서도 형식 체언에 지정의 조동사(「だ」)가 결합된 것으로「ようだ」를 분석하여, 推量의 조동사에서 제외시켜 그 범위가 좁은 편이다. 寺村秀夫(1984)에서는 조동사를 「活用する属語」로 정의하여 기존의 推量 조동사에 「はずだ」도 소속시켰고, 더 나아가 益岡陸志는「かもしれない」「にちがいない」까지도 推量 조동사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넓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과 일본어 교육사전의 규정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推量 조동사로 인식되어 온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推量 조동사로 규정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제 2장. 선행연구의 개관 및 본고의 입장

언어학자들은 「そうだ」「ようだ」「らしい」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써 吉田金彦(1971), 森田良行(1980), 寺村秀夫(1984), 早津惠美子(1988)가 있다.
이들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고의 입장을 밝혀보려 한다.

먼저 吉田(1971)는 조동사 중에서 推量 조동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체 조동사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정의하였다.
推量이나 否定 판단의 조동사가 제 2차적 어미와 제 4차적 어미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존에 제 1차적 어미에서 제 5차적 어미로 분류된 조동사를 다시 각각 제 1류 조동사에서 제 5류 조동사로 명명했다. 제 4류 조동사가 소위 推量, 様態, 非況, 伝聞, 등의 終止形 接詞의 조동사로 이들 모두를 넓은 의미의 推量 조동사로 보았다. 여기에서 吉田(1971)는 제 2류 조동사에 있어서 推量이 대체로 주관적 특성이 있는데 비해, 제 4류 조동사는 客觀的인 특성이 있다고 보고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そうだ」가 용언의 종지형에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접속할 때 다른 매체(서면, 인물, 방송 매체 등)로부터 얻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용되며, 「伝聞」, 「他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인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용언의 연용형에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접속할 때 불확실한 추량의 의미로 사용된다.
「ようだ」의 의미 용법을 살펴볼 때,
첫째, 비유의 의미로 주로 체언 뒤에 접속하여 연용형 「ように」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둘째,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를 지시하며「ような」나 「ように」의 활용 형태를 지닌다.
셋째, 예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넷째, 불확실한 단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活用은 「ようで」,「ようだった」,「ようだ」,「ような」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고, 이 역시 용언과 체언 뒤에 접속한다.
다섯째, 사건, 사상에 목표, 집중하는 뜻을 나타낸다. 활용 형태는

dCollection @ chosun

「ように」로 용언과 접속한다.
마지막으로 「らしい」에 대해 살펴보면 용언의 종지형에 접속하여, 주로 객관적 推量 판단을 나타내며 객관적인 근거는 있으면서 그것을 문장에서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断定한다. 연체형의 「らしい」는 推量 판단의 주관성이 희박하지만 그 또한 推量 조동사로서의 용법은 작용한다.
吉田(1971)는 위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동사를 활용과 의미 용법 측면에서 5가지로 나누어 「そうだ」「ようだ」「らし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이 推量 조동사의 의미용법을 어떤 품사와 상접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이들 조동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도 推量의 의미가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推量의 의미를 전문, 比喩, 様態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森田(1980)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そうだ」는 외면에 나타는 모습 즉 현재 외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직감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推量 표현이다. 외재하는 대상에 대해 현재의 様態를 문제로 삼는다. 따라서 시각에 의한 지각, 화자의 불확실한 推量, 가까운 미래에 곧 발생하는 직전 상황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ようだ」는 시각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감각, 지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정 일반에 사용된다. 어떤 사물에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어 말하는 비유나 同種의 것 중에 하나를 들어 예시하는 표현, 후술하는 내용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지시, 어떤 대상이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이행해 가는 것이 자연적인 귀결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불확실한 단정, 완곡한 推量 판단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らしい」는 「ようだ」와 많이 유사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토대로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推量하는 의미를 가진다. 근거에 기초한 상당히 확실성이 있는 推量 표현이다.
森田(1980)는 吉田(1971)보다 의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そうだ」의 様態를 기존의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의 구분 정도에서 한 발 나아가 시각에 의한 지각, 직전상황, 주관적인 직감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각각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용법의 의미를 기존의 설명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볼 수 있겠다.

dCollection @ chosun

寺村(1984)는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そうだ」는 様態 및 伝聞을 「ようだ」는 推量과 比況, 「らしい」는 근거가 있는 推定의 의미를 나타낸다. 様態의 「そうだ」는 가까운 곳에서 동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 같은 양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어떤 성질, 내부 사정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伝聞의 「そうだ」는 자신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외부로부터 이렇다고 전해 들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전하는 표현이다.

또한 「ようだ」「らし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推量적인 관점에 비교해 볼 때, 「そうだ」는 화자가 감각적으로 파악한 세계의 様相, 전형적으로 시각에 비취진 직감적으로 묘사하는 색채가 강하고 머리 속에서 推量하는 것이 가장 약하다. 「ようだ」는 推量과 比況의 2가지 의미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적인 의미는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양태의 「そうだ」와 推量의「ようだ」를 비교해 보면, 우선 「そうだ」쪽은 시각, 청각, 그 이외의 감각 기관에 의해 얻어진 정보, 혹은 주위의 상황도 고려해서 推量한 결과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らしい」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推定한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여기서 推定이라고 하는 것은 断定에 가까운 확신 및 객관성이 꽤 높은 의미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판단을 포함하는 「ようだ」의 推量과 구분하기 위해 推定을 쓴다. 推定의 근거는 자신이 직접 관찰하여 얻은 정보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伝聞의 「そうだ」와 비교할 때 100%외부로부터 얻은 정보임이 확실하나, 그 정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推量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ようだ」와「らしい」의 차이점은 推量의 비중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이 비중이 큰 것인지,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한 비중이 큰 것인지에 있다. 이 둘 중「らしい」쪽이 「ようだ」보다 외부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토대로 推量하는 느낌이 강하다. 반면 「ようだ」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推量한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寺村(1984)는 이 「そうだ」「ようだ」「らしい」推量 조동사를 概言이라는 무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즉 확신할 수 없지만,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배경 지식, 정보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주로「そうだ」「ようだ」「らしい」

dCollection @ chosun

형식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세 추량 조동사의 의미 용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早津(1988)는 「ようだ」 「らしい」를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첫째, 판단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발화주체의 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발화 주체의 내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외적 요인이란, 발화 주체가 문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등 어떤 매개를 통해 얻은 정보, 즉 판단의 근거가 외부에서 들어온 간접적인 정보를 말한다.
내적 요인이란 발화 주체 즉, 몸소 얻은 정보로 직접적인 정보를 말한다.
직접적 정보를 통해 얻은 것에 「ようだ」를 쓰며,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 얻은 것에는 「らし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사태에 대한 발화 주체의 심적 태도로 다시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사태나 판단의 내용은 자신에게 가까운 것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 즉 'ひきよせ'의 태도와 다른 하나는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사태, 판단의 내용을 스스로 일정거리를 두고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 'ひきはなし'의 태도이다. 판단의 근거가 간접적으로 정보라고 해도 'ひきよせ'의 태도를 취할 경우, 「ようだ」를 쓰고, 직접적인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ひきはなし'의 태도를 취할 경우 「らし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발화 주체가 저절로 얻은 정보, 즉 판단 근거의 직접성에 있을 경우 「ようだ」를 쓰고, 제 3자나 언론 매체, 서적 등을 통해 얻은 정보, 즉 판단 근거의 간접성에 있을 경우, 「らしい」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그쳤다. 그러나 早津(1988) 는 직접적 정보일 경우라도 화자의 심적 태도가 'ひきはなし(대상과 거리감을 두는 경우)'일 경우 「らしい」를 쓸 수 있다고 하고, 간접적 정보일 경우라고 해도 화자의 심적 태도가 'ひきよせ(대상과 거리감을 두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よう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ようだ」와「らしい」의 사용 구분이 모호한 영역을 유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ようだ」와「らしい」양자의 구별 요소는 명제의 판정권을 누가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 명제의 판정권의 소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話者 및 非話者(화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dCollection @ chosun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에 해당) 모두 존재하고, 둘째, 話者 혹은 非話者로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다. 「ようだ」는 話者가 자신의 내적 지식, 정보에 의존한 판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 그 명제 내용에 대한 진위성 판정에도 話者가 책임을 지는 태도를 포함한다.
「らしい」는 話者가 외부로 부터의 지식, 정보에 의존한 판정권을 행사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외부로 부터의 지식, 정보에 의존하여 화자가 아닌 입장에서도 판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그 명제 내용에 대한 진위성 판정에 특별히 책임을 지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명제의 판정권이 화자나 비화자 둘 중에 한 쪽에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 「ようだ」의 명제 판정권이 100% 화자에 있고, 「らしい」는 그 판정권을 非話者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らしい」는 「ようだ」와 비교하여 그 명제 내용의 판정에 자신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나타내며, 보다 객관화된 표현으로서의 뉘앙스가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명제에 대한 話者의 신뢰를 통해 구별해볼 때 「ようだ」「らしい」는 話者가 명제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そうだ」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명제에 대한 믿음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형식이다.
마지막으로 명제 작성권이라는 요소를 통해 볼 때, 모두 話者가 명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そうだ」「ようだ」「らしい」는 非話者도 상관없이 명제를 만들 수 있다.
윤상실(2005)의 이와 같이 推量 표현의 차이점을 명제와 관련된 요소로 변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문장으로 드러난 말의 뉘앙스를 위주로 구분 요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윤상실은 문장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및 문장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推量 조동사 「そうだ」「ようだ」「らし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推量의 조동사로 접근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そうだ」「ようだ」에 관해서는 樣態를 위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吉田(1971)는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そうだ」의 伝聞「ようだ」의 比喩및 예시도 넓은 의미에서 推量으로 보고, 이들이 推量 조동사로써 가지는 의미 용법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따라서 본고에서도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推量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dCollection @ chosun

제 3장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용법

3.1.언어학자의 정의

언어학자들은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橋本進吉는 조동사 「そうだ」는 「様態」와 「伝聞」으로 분류하였고[6]「ようだ」는 「比況」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らしい」는 推量으로 구분하였으며 時枝誠記는 橋本進吉와 마찬가지로 推量 조동사에서 「そうだ」「ようだ」는 제외시키고「らしい」만 推量 조동사로 분류하였다.[7]

渡辺実는 推量 조동사의 분류를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체언에 접속하는 甲種「らしい」「だろう」, 용언에 접속하는 乙種「う（よう）」「そうだ」「まい」로 구분하였으며, 문장 안의 역할에 따라 「らしい」는 다시 述語의 연장적인 역할을 하는 제 2類로,「そうだ」는 述語의 일부 역할을 하는 제1類로,「だろう」「う（よう」「まい」는 述語에서 분리된 종조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제3類로 구분하였다.[8]

金田一 는 조동사를 주관적 표현의 말과 객관적 표현의 말로 나누어 설명하며「だろう」는 주관적 표현에 사용되며 현재 話者 자신에 대한 推量이나 의지만을 나타내는 거에 비해 「そうだ」「ようだ」는 과거와 타인에 대한 推量도 나타낸다고 분석함으로 처음으로 조동사「そうだ」「ようだ」를 推量 조동사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9]

寺村秀夫는 推量 조동사를「概言の助動詞」라는 범주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概言」의 의미는 상대에게 직접적인 정보, 간접적인 정보이든 어떠한 상황이 대체로 그러하다고 전한다는 뜻으로 쓰이며「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概言の助動詞」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そうだ」는 단순히 감각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ようだ」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표현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話者의 推量 근거를 자기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중점을 두며,「らしい」는 획득된 정보에 중점을 둔다고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다.[10] 이것은 기존의 학자들이 推量 조동사들의 개별적 특성에 중점을 둔 반

---

6) 橋本進吉（1950）,『国語法研究』, 岩波書店, p 159
7) 時枝誠記（1950）,『日本語文法口語論』, 岩波書店, p 204 ~ p 206
8) 渡辺実（1974）,『国語構文論』, 塙書房, p 113
9)金田一（1981）,『日本の言語学』「不変化助動詞の本質」第3券, 服部四郎外, 大修舘書店, p 218 ~ p 219

dCollection @ chosun

면, 寺村는 推量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각각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종합적인 시각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そうだ」「ようだ」「らしい」용법에 대한 의미 범주에 대해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推量이나 推定, 様態의 의미 범주에 대한 의견이 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 일본어에서 推量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조동사로 취급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活用을 하는 조동사로 「そうだ」「ようだ」「らしい」「みたい」가 있고, 無活用 조동사로「う（よう）」「まい」「だろう（でしょう）」,그리고 推量 조동사로 간주하는 「～にちがいがない」「～かもしれない」가 있다. 이중 본고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そうだ」「ようだ」「らしい」는 학자에 따라서 様態, 推定, 推量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범주화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日本語文法大辭典』에서 推定을 推量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北原(1983)는 様態의 조동사도 방관적인 태도로 사물을 묘사하고 사물의 상태와 실정을 추측하는 것으로 推量 조동사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1)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가진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의미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2.「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用法

(1)「そうだ」의 用法

조동사「そうだ」는 「様態」와 「伝聞」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様態」의 「そうだ」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ようだ」「らしい」처럼 '推量 表現의 一種'이라고 할 수 있으며, 話者가 어떤 현상을 근거로 하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사용된다. 용법은 外見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에 대한 판단, 현재의 상황이나 사태를 근거로 한 주관적 판단, 미래에 대한 판단, 움직임이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12)

---

10)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トと意味』第Ⅱ券, くろしお出版, p 223～p 224

11) 北原保雄外（1983）,『日本語文法辞典』, 有精党, p 206

12) 森田良行（1988）,『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p 592

dCollection @ chosun

「そうだ」는 전접하는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의미상 2가지로 나뉘어져, 상태성 述語가 전접하는 경우는 言表 事態에 대한 발화시의 단순한 樣態 表現은 물론 내면적인 상태까지도 推量하고 동작성술어가 전접하는 경우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태를 추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단어가 전접되더라도 「そうだ」는 他情報를 근거로 하는 他情報 의존도는 거의 無에 해당되며, 오직 話者의 객관적인 관찰에 주로 의존하는 話者 의존도가 매우 높은 推量의 표현이다.
사전류에 나타난 「そうだ」의 정의를 살펴보면

①「そう」は様相、外面に現れた様子。外在する事物や人が、現在ある様子を呈していること。外側に現れた様子から、勘として事実を判断するため、推量的気分が生まれる。外在する対象の現在の様態を問題とする語である。
（基礎日本語辞典, p 592）
②様態を推量する意味である。（広辞苑, p 1387）
③一般に様態の助動詞と呼ばれ、話し手がある事柄について十分にその可能性がある状態ととらえた場合に用いられる。（日本語教育辞典, p 379）
④外からみた、また今起こそうとする様子状態。（日本語大辞典, p 1133）
⑤傍観的に外からみて、そうだろうと判断する特性がある。（日本語文法大辞典、p 397）

「そうだ」가 推量的 기능의 특성의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로 기능의 조동사로 언급되는 만큼 樣態의 특성을 들 수 있겠다. 田中章夫(1971)에서는 「そうだ」가 방관적으로 밖에서 보고 그러하리라고 판단하는 특성을 갖는다[13]고 설명하였고 寺村秀夫(1984)에서도 역시 다른 推量 조동사보다 감각적, 직감적, 추사적인 색체가 강하여 머릿속에서 推量한다는 느낌이 가장 적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14]
또한 이러한 樣態의 특성 때문에 「そうだ」가 1인칭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색하다고 볼 수 있다.

13) 松村明(編), 前掲書, 1971, 397p
14) 寺村秀夫, 前掲書, p239

dCollection @ chosun

(1)「向うへ行きましょう。何處か静かにお話し出来そうなところがありそうですわ。」（『夏花』，p168)
(2)「そういう条件に合う人物はどんどん減っている。功利的な言い方をしても、むしろ分はますます悪くなりそうに思える。（『誰のために愛するか』、p23～p24)

앞으로 발생될 상황이나 가능에 대한 표현에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뜻의 樣態의 특성만으로는 「そうだ」의 推量 기능의 특성이 설명되기에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둘째, 「そうだ」와 전접하는 단어의 성격을 분석하여 「そうだ」의 기능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寺村秀夫(1988)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述語와 전접할 경우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전접할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내면에 대한 推測이나 내면에 대한 암시 할 예상을 나타내 주고, 후자는 곧 발생될 것을 예상해 준다고 설명했다.[15] 위의 (2)은 이러한 寺村秀夫의 이론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3)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寺村秀夫(1984)에서는 (2)의 경우처럼 전접하는 단어의 특성에 따라 구분 지었던 이론에 대입 시키다면, (3)은 질식될 상황이 발생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과장된 표현이라고만 설명하였다. [16] 즉, 전접하는 단어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하여 「そうだ」의 推量의 기능을 분석한 寺村秀夫(1984)만으로는 (3)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そうでもしなければ、窒息してしまいそうな気持だった。（『夏花』 p 2）

따라서, 森田良行(1988)에서는 동작 동사와 결합되었을 경우를 다시 세분화시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こぼれそうな水」처럼 긴박감과 위태감을 나타내며, 후자는 타인이나 다른 사태로부터 받는 심리적 인상이나 자신에 부과된 정신적, 생리적인 부담감을 나타내 준다고 설명하였다.[17] 이러한 분석법에 따르면 (3)의 경우는 자신에

15) 寺村秀夫, 前揭書, p240~241

16) 上揭書, p241
17) 森田良行, 前揭書, p592

dCollection @ chosun

부과된 정신적 부담감을 나타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의 (4)는 눈에 보이는 쪽에 해당되는지, 보이지 않는 쪽에 해당되는지가 의문이다.

(4) 駒子の声が八方へ漏れそうで、島村は落ち着いていられなかった。（『雪国』 p 94）

목소리가 샌다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눈에 안 보이는 쪽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청각은 시각과 더불어 사람의 오감에 속해 감각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쪽에 해당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동작 동사의 분류기준을 단지 시각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경우와 안 보이는 경우로만 간단하게 분리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そうだ」의 推量 기능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특성을 오히려 간과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셋째, 「そうだ」도 「らしい」와 「ようだ」와 동일한 시각에서 분석한다면, 다른 推量 조동사와의 상호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각각의 특성이 더욱 선명하게 명시될 수 있으므로 화자가 言表 事態에 대해 갖는 推量의 근거를 기준으로 「そう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そうだ」의 推量의 특성을 파악해 본다면, 「そうだ」는 화자가 자신의 관찰에만 의존하여 推量 表現을 나타내기 때문에 他情報의존도는 거의 無에 가까울 정도이고, 話者 의존도만 매우 높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そうだ」에 있어서의 推量의 근거가 화자의 관찰에 주로 의존한다고 하여 매우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파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화자의 관찰에만 의존하는 推量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찰의 방법면에 있어서는 이미 寺村秀夫(1984)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매우 객관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そうだ」의 이러한 시각적, 직관적이며 객관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話者 依存的 推量의 특성은 仁田義雄(1989)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らしい」「～用だ」「～みたいだ」が、未来の事態だけではなく、過去の事態をも推し量りの対象にしえたのに対して、「～そうだ」は、過去の事態を推し量りの対象になしえない。その意味で「～そうだ」による徴候の存在の元

dCollection @ chosun

での推し量りは、他の形式によるそれより現象描写文に近いと言えよう。[18]

이상의 「そうだ」의 推量 機能을 요약하자면 「そうだ」는 주로 話者의 관찰에 의존할지라도 주관을 거의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단지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 표현으로서, 전접하는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다만, (3)의 「そうだ」는 후접하는 「気持」를 단지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2)처럼 문장전체의 서술을 담당하는 조동사라고 하기보다는 접미로 판단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3)과 유사한 「腹が減って死にそうだ」에 대해, 원래 「そうだ」는 객관적인 様態의 표현이지만, 자신에 대해 언급할 경우에는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寺村秀夫(1984)의 해석보다는 「～な気だった」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하여 후접사로 취급하는 것이 전접하는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そうだ」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寺村秀夫(1988)에서처럼 동작 동사에 후접하는 경우의 「そうだ」를 설명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동작 동사를 구분시킬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そうだ」를 의미상 2분류시켜 분석하는 것은 森山卓郎(1989)에서도 「そうだ」를 다음과 같이 그 특성상 2분류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는 듯하다.
즉, 「寒そうです」나「落ちていそうだ」의 상태성 술어에 전접된 「そうだ」는 이미 실현된 상태를 나타내므로 다른 推量 조동사가 속해 있는 「인식적ムード」[19]의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미실현의 사태를 나타내는 「おちそうだ」는 연용형에 후접된다는 것 자체부터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認識ムード」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そうだ」를 전접하는 단어의 성질상 분류하여 특징 짓는 寺村秀夫나 森田良行 등의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또한 전접하는 단어의 종지형에 연결되는「ようだ」「らしい」와는 달리, 전접하는 단어의 연용형에 연결되어 전접하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접하는 단어의 성격이 당연히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접하는 단어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

---

18) 仁田義雄、前揚書, １９８９、p45
19)森山卓郎、認識ムードとその周辺、『日本語のモダリティ』、仁田義雄、益岡陸志(編)、くろしお出版、1989、p61、「認識ムード」

dCollection @ chosun

「そうだ」는「ようだ」「らしい」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근거로 삼았던 他情報 의존도와 話者 의존도의 정도의 차이로 포괄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비록 전접하는 단어에 따라서 의미상 차이는 있겠지만, 「そうだ」의 특성은 推量的 表現시 他情報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화자의 객관적인 관찰에만 주로 의존하는 話者 의존도만 매우 높은 推量 表現으로 사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 추량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그 이외의 非推量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5)すると疑問なのは、安田も連れの婦人がどのような役割をしたかとうことです。裏返していうと、安田が情死の両人にある作為をもって立ちあったとすると、それにはある婦人が必要だ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つまり安田とその婦人が一体とならなければ安田の企む工作はできなかったと言えそうです。（『点と線』 p 182）

(5)에서의 「そうだ」는 자신의 주장을 推量의 의미로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일개 지방 경찰서의 말단형사(鳥飼) 가 경시청의 警部補(三原)에게 살인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므로 斷定的인 표현을 피한 婉曲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そうだ」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仁田義雄(1992)에서는 「そうだ」의 婉曲性은 話者의 眞意와는 별도로 청자는 推量으로 해석하게 되는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배려의 강도가「ようだ」만큼은 강하지 못하므로 「和らげの表現」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
따라서 「そうだ」의 非推量의 기능은 推量으로도 婉曲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推量性과 매우 밀착된 「和らげの表現」에 가까운 婉曲이며, 「ようだ」「らしい」와 달리 「伝聞」의 기능은 분리되어 동사의 종지형에 연결되는 「そうだ」가 담당한다.
「そうだ」는 話者가 판단 근거가 되는 어떤 대상의 모습과 그 장면의 상황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보아 충분히 그럴

20) 仁田義雄, 前掲書, 1992, p9~p10

dCollection @ chosun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推量할 때 쓰여 지며, 동작이나 상태가 가까운 미래에 성립될 긴박감과 염려가 있는 현재의 상태와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1인칭이나 과거의 推量을 할 수 없다. 용법을 분류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外見에 의한 樣態, 실현의 可否에 중점을 두고 예상하는 주관적인 직감 판단, 어떤 장면의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예상,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未來에 대한 予想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하여 뭔가가 실현될 가망이 충분히 있어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広田紀子(1987)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推量하는 기분이 나타난다고 했다.[21]
즉, 눈앞의 外見과 주관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어느 동작이나 작용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직감 판단의 용법보다 무엇인가의 실현·불가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2)外見에 의한 樣態

일반적으로 형용사, 형용동사, 가능동사, 그 밖에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뒤에 붙는 「そうだ」는 확실히 확인할 수 없지만, 외견으로부터 판단하면 그러한 성질과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그러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성질과 상태만으로 그 당사자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推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そうだ」가 쓰여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基礎日本語辞典』에서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으로 대상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과 상태에서 받은 시각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2]

---

21) 広田紀子 (1987),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②』, 形式名詞, 荒竹出版, p42
22) 森田良行 (1988), 前掲書, p592

dCollection @ chosun

3)직감의 판단

그 장면의 상황이나 과거의 경험 등을 기본으로 하여 화자의 직감으로 '아마 그러할 것이다'라고 무엇인가를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상황이나 증명되지 않는 다소 애매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基礎日本語辞典』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직감에 의한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여 불확실한 단정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23)]

4)직전의 상황

동작 동사에 접속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화자가 어떤 장면의 상황을 그렇게 되기 직전의 상태라고 판단하는 표현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인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나 감각의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이는 변화나 움직임이 일어날 바로 직전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점이 초점으로 실현의 可否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森田(1988)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긴박과 위기감을 나타내며 후자는 타인이나 다른 상태로부터 받는 심리적 인상이나 자신에 부과된 정신적, 심리적인 부담감을 나타내준다고 설명하였다.[24)]

이상과 같은 「そうだ」에 대한 특성을 요약·정리 하자면 「そうだ」는 주로 대상의 현재 모습과 상태를 화자의 시각을 통한 외견상의 관찰에서 받은 인상과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 등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話者의 주관적인 개인 요소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이며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前部에 오는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의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

23) 森田良行 (1988) , 前掲書, p593
24) 森田良行 (1988) , 前掲書, p620

dCollection @ chosun

(2)「ようだ」의 용법

조동사「ようだ」의 용법은 「様態」와「比況」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먼저 「様態」는 대부분 文末의 述語에 붙어 쓰이면서, 근거가 되는 대상이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에 관계없이 話者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직접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서술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比況」은 어떤 사물의 상태를 다른 것에 비유하여 예를 드는 것을 말한다.
참고 문헌을 통해서「よう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①語源的には、名詞「よう」に断定の「だ」の付いたもの。「よう」（様）は「有り様」そのような有り様での意味だが、視覚的なものに限らず、広く感覚·知覚でとらえられる事柄一般に使用される。（基礎日本語辞典, p 1181）
②何かがそうととらえられる状態にある意を表す。（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例と実例, p 377）
③あるものを例にして比べてある意を表す。不確実な断定の意を表す。例にする場合に用いる。「ように」の形でそのとおりの意、目標の意、祈願や軽い命令に伴って用いられる。（日本語大辞典, p 2022）
④普通推量と比況の二通りの使い方があると言われるが、その中心的な意味は、「真実に近い」ということだと言える。「真実かどうか確信はできないが、自分の観察したところから推し量って、これが真相にまちがいないだろう」という事が言いたいときは、「推量」になり、「真相ではないことは分かっているが、ある対象が事実と似た様相をと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いたい時はいわゆる比況の表現になる。（寺村, 1984, p 243）

이상을 종합해보면「ようだ」는 話者의 주체적인 판단을 직접 표현하는 말이다. 판단 근거는 객관적인가와 주관적인가는 상관없으며 객관적인 근거를 판단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らしい」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된다.
「ようだ」의 推量的 機能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ようだ」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되어온 「比況」이란 특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吉田章夫(1971)에서는 「ようだ」를 「比況」의 조동사로 설명하였고 村上本二郎 역시 다른 어떤 것에 比喩하여 유사하다고만

dCollection @ chosun

概括的으로 설명하였다.

(6)今はもう素直なあきらめにつつまれて無心な夢のようであったから、都の洛人じみた高慢な不平よりも、単純な徒労の感が強かった。(『雪国』 p 72』)

寺村秀夫(1984)에서도 「推量」과 「比況」의 共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ふつう推量と比況の二通りの使い方があると言われるが、その中心的な意味は、「真実に近い」と言うことだと言える。「真実かどうか確言はできないが、自分の観察したところから推しはかって、これが真相に近いだろう」ということが言いたいときは、「推量」になり、「真実でないことはわかっているが、ある対象が真実と似た様相をと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いたいときはいわゆる比況の表現になる[25)]

그러나 (6)과 같이 명사와 연결시킬 경우에는 마치 비교의 특성만이 강조될 수도 있겠으나, (7)과 같이 용언과 연결될 경우는 比喩만이 아니라 言表事態에 대한 전반적인 話者의 심적 상태까지도 推量으로서 표출될 수 있겠다.

(7)僕の名が捜査線上に浮かぶまでには、さほどの時日は要さなかったようだ。(『あしたの貌』 p 102)

둘째, 寺村秀夫(1984)나 森田良行(1988)등에 의하여, 「ようだ」의 推量의 기능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강조되어 온 話者의 주관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특히 寺村秀夫(1984)에서는 「ようだ」는 시각, 청각 이외의 여러 감각에 의하여 얻은 정보나 주변 상황까지도 고려한 뒤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한 점은 다음의 (8)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a.雪が麻生の容貌を侮辱した一件電話してくれた時、恵子の奇妙に冷静な表情の端端に、心なしか、女の優越が滲み出ていたような気がする(『あしたの

25) 上掲書, p243

dCollection @ chosun

貌』９０～９１）
b. 臼くらい空間の遠い底から、麻生の声が聞こえたような気がしたのだ（リッちゃん、あなたは真相に手が届きかけている。もっと、もっと手を伸ばして。。。。。私を救って。。。（『あしたの貌』９１）
c. 警察はどのような見解をとるだろうか。それは和子に判らない。どちらでもいいと、ふと賭けるような気持になった。（『砂の殺意』３３）

즉, a와 b는 麻生의 살인범에 대한 リッちゃん가 갖고 있던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추측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ようだ」에 의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c역시 話者가 상황에 대한 어떻게 할까하고 여러 면에서 숙고했다는 의미가 「ようだ」에 의하여 잘 나타난다. 특히「らしい」는 어색하지만, 「気がする」「気持になる」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らしい」가「の話では」나「～によると」와 자주 사용된다는 점과 비교해 보아도 「ようだ」가 주관성이 강하다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言表 事態에 대한 주관성이 다른 推量 조동사와 비교하여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ようだ」만의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다음의 (9) A의 「ようだ」를 「らしい」로 바꾸면 의미가 변화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9)A.新聞で見ましたが、この間の地震によるメキシコの被害はたいへんなものようですね

B.新聞で見ましたが、この間の地震によるメキシコの被害はたいへんなものらしいですね[26)]

따라서 셋째, 주관성이 「ようだ」의 推量 機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주관성이란 용어의 애매성을 지적한 早津恵美子(1988)에 의거하여 그 특징을 찾아보겠다. 早津恵美子(1988)에 의하면 「ようだ」는 직접적 정보를 근거로 한 경우이거나 간접적 정보의 경우는 話者의 심적 태도가 言表 事態에 대해 밀접한(「ひきよせ」) 의 경우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간접적 정보이지만 話者의 심적 태도가

26) 早津恵美子、前揚書、５８p

dCollection @ chosun

밀접한 (「ひきよせ」) 의경우의「ようだ」는 신문기사나 서적의 기사를 자신의 입장에 가깝게 해석학자 하는 경우, 특파원이 기사의 현장감을 살리거나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확신감이 있는 의견임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를 표현해 준다. [27]따라서 위의 (9)의 의미 구분도 가능해진다.
결국, 이상의 「ようだ」의 推量 機能에 대한 3가지의 분석을 종합해 본다면 「ようだ」는 「比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직접 정보이고 화자의 주관성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ようだ」는 話者 의존도가 他者情報 의존도보다 높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推量表現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気がする」「気持になる」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ようだ」의 非推量의 기능은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다.
첫째, 「ようだ」의 非推量의 기능으로서 다음의 (10)에 나타나는 婉曲을 들 수 있겠다.

(10)向うの係員は書類を見ていたらしいが、「そんなものはないようですな」
「無い？」
「ええ。ここに詳細なその所持品の一覧表が出来ていますが、この中に書き込んでありません～」 (『地の指(下)』145～146)

早津惠美子(1988)에서는 「ようだ」의 非推量의 기능으로서 婉曲한 단정의 표현을 지적했다.[28] 그러나 직접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의 표현인 다음의 (11)의 「ようだ」와 婉曲한 단정 표현과는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らしい」의 경우처럼, 婉曲의 성립조건에 대한 전제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1)「店内をひととおり見てきたが、この店の品物はどれも近くの店より一割ぐらい安いようだ」[29]

---

27) 上揭書, p58~59
28) 早津惠美子, 前揭書, p59
29) 上揭書, p57

dCollection @ chosun

그러나 仁田義雄(1992)에서는 婉曲의 성립조건을 2가지를 제시하여 이에 맞추어 대표적인 婉曲의 예로서 다음의 예문(12)를 들며

(12) (終了予定の時刻が過ぎているのを自分の時計で確かめておきながら)
「時刻になったようですの。本日の会議はこれでお開きに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

다른 推量 조동사 중에 「ようだ」가 婉曲性이 강한 표현이라고 했다.
「ようだ」는 실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로 용법을 분류하자면 不確実한 断定, 主観에 의한 직감적인 표현, 婉曲한 표현, 比喩, 例示, 目的, 願望, 依頼, 勸告, 意圖·推移, 내용 지시에 의한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룬다.

1)不確実한 断定

文末의 용언에 주로 접속되어 쓰여지며,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기초로 하거나 마땅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강하게 '그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부드럽게 断定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판단하는 경우에는「らしい」의 용법과 거의 같다. 『教師用日本語教育文法Ⅱ』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 장면의 상황과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30]

2)婉曲한 표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断定을 피하려는 표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가미되어 단정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30) 国際交流基金 (1980),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4 文法Ⅱ』, 凡人社

dCollection @ chosun

하는 의도와 상대방의 심정이나 입장을 배려하려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3)主觀에 의한 직감적인 표현

話者가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명확한 상황이나 정보는 없지만, 그 장면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극히 주관적이고 직감적인 인상과 감각에 기초해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표현이다.

4)例示

「Aのように～なB」라고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例示하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B의 조건을 구비한 것 중의 하나로 B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 된다.
화제를 제시하는 표현으로 어떤 사태나 사물의 상태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같은 종류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 시간, 장소 등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5)比喩

「A는 B와 같다」 「B와 같은 A이다」와 같이 話者가 A라는 대상을 표현할 때와 A와 사물의 동작, 상태, 성질, 형상 등이 유사한 B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B는 A가 아니다. 「～に似ている」라는 의미로 즉 A와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外見으로 봤을 때 비슷한 대상인 B를 설명의 도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6)기타

앞서 살펴본 총 5가지의 용법이 推量 조동사로 다룰 때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이 용법 이외에도 지금은 推量 조동사로서의 의미가 희미해지거나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법들도 있다.

①내용지시
「AのようにBは / BはAのようである」형태로 나타낸다.「AのようにBは」라

dCollection @ chosun

고 한다면 본 내용은 뒤에 진술하는 부분이 있고「BはのAようである」라고 한다면 미리 진술한 부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지인 것이다.[31)]
진술된 사항이나 또는 앞으로 진술할 무언가와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目的
「ようだ」의 활용형인「ように」의 형태로 행위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다.

③勸告, 願望, 依賴
「ように」의 형태로 勸告, 願望, 依賴 등의 내용을 나타낸다.

④事態·推移에 의해 귀결된 상태
「ように」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태의 추이에 의하여 그렇게 되거나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32)]

3.2.3.「らしい」의 용법
현대 일본어에 있어서
조동사 「らしい」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할 것이다」라는 推量의 의미로 사용한다. 推量의 근거로 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자신이 직접 관찰하여 얻은 정보인 것도 있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들은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즉 화자의 推量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기보다 다른 매개체를 통해 얻은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推量 판단에 있어 화자의 책임 의식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정보의 종류에 의해 직접정보에 의한 객관적 推量과 간접 정보에 의한 婉曲한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문헌에 나타난 「らしい」의 정의를 살펴보면

①~と推量される状態にある（または属性をもらっている）という意味を持つ助動詞であって、客観的な叙述に用いられる語だ。（金田一, 1953, p 237）
②推定または断定の意味を表す。（現代語助詞·助動詞, 1951, p 278）
③根拠や理由のある推定を表す。確な伝聞などに基づく推定を表す。（広辞

31) 森山良行（1980）, 前掲書, p 503
32) 日本語教育学会編（1982）,『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p 378

dCollection @ chosun

苑, p 2493)
④よりどころをふまえて推量し、遠回しに断定する意を表す。(国語大辞典, p 2048)
⑤その断定が、その状況から推量される場合…常にある客観的な状況がその断定の根拠になっている。(時枝, 1950, p 175)
⑥ある事柄について、かなり確信の持てる客観的な根拠に基づいて、そうとらえて良い状態である。(日本語教育辞典, p 385)

따라서 「らしい」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에 바탕을 두고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표현 내용과 話者의 심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此島正年(1979)에서는 접미사인 「らしい」와 조동사인 「らしい」와의 구분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하였지만, 접미사의 경우는 본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시키고자 한다. 조동사로서 推量의 기능으로 표현될 경우에 다른 推量 조동사와는 어떤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겠다.
첫째, 「らしい」가 推量 機能으로 표현될 때에 시제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時枝誠記(1950)에서는 「父が出かけるらしい」의 예문을 들어 「らしい」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推量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음의 (13)에서는 과거에 발생된 사태에 대해 현시점에서 推量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らしい」자체가 過去形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3)A.「ねえ、帰れないわ。女中さんが火を入れてきて、みっともない、驚いて飛び起きたら、もう障子に日があってるんでるもの。昨夜酔ってたから、とろとろと眠ちゃったらしいわ。(『雪国』112 p)

B.夏は混雑するが、寒い季節は一人の客もないらしかった。(『夏花』113 p)

즉, (13)의 A에서는 이미 잠이 들어버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과거완료형의「ちゃった」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らしい」는 사용되고 있으므로, 「らしい」를 오직 현재의 상황에 대한 推量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발생된 言表 事態에 대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推量할 수

dCollection @ chosun

있다.
또한 (13)의 B의 「らしい」는 자체가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森山卓郎(1988)에서는 言表 事態나 推量化시켜 주는 「らしい」가 발화시의 심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심적 태도나 객관적 세계로 전환된 상태를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33)
둘째, 「らしい」는 言表 事態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推測한다는 金田一春彦(1953), 寺村秀夫(1984) 森田良行(1988) 등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寺村秀夫(1984)에서는 「らしい」와 「ようだ」의 차이를, 「らしい」가「ようだ」보다 他情報에서 얻은 것을 근거로 推量한다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ようだ」는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推量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비교분석하였다. 34)

(14)芸者のいる家は料理屋とかしるこ屋とか色褪せた暖簾をかけているが古風な障子のすすけたのを見ると、これで客があるのやら、そして日用雑貨の店や駄菓子屋にも、抱えた一人置いているのがあって、その主人達は店の他に田畑で働くらしかった。（『雪国』44ｐ）

(14)에서 동네가 번화한 곳이 아니라는 전제를 障子가 찌들어 있다든가 가게는 한명만이 지키고 있다든가의 표현으로서 제시하기 때문에, 「らしい」는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요소를 갖고서 推測한다는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らしい」의 推量的 기능에 객관적인 근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推量 조동사들과의 相異点을 객관적 근거만으로는 명시할 수 없다. 객관적 근거만으로 「らしい」의 推量의 기능을 규정한다면, 다음 (15)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와 다음의 (16)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설명될 수 없다.

(15)？(医者が患者に聴診器をあてながら) ちょっと気管支が悪いらしい目すね。35)

---

33) 仁田義雄, 前掲書, (1989), p37
34) 寺村秀夫, 前掲書, 1984, p250~~251
35) 早津恵美子,前掲書 ,p57

dCollection @ chosun

(16)「若い医者も患者を見て、「面会人でも顔の識別のできるのは、お父さんや妹さんぐらいで、他の知人の顔はほとんど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ようです。そんな具合ですから、前に来た場所を通っても記憶は無いと思いますね。」(『地の指(下)』161)

즉, (15)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객관적인 병세를 보고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갖는 「らしい」가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고 (16)에서는 「ようだ」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단지 객관적인 근거만으로 「らしい」의 특징적 기능으로 지적하기는 무리이며, 「らしい」의 推量 기능의 특징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점은 타당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못하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객관성 이외에 「らしい」의 推量의 기능에 대해 뚜렷하게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겠다.
객관적이란 용어의 애매성을 지적한 早津惠美子(1988)에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らしい」의 推量의 기능은 話者가 직접 정보를 갖고 있으나 심적 상태가 다소 소원한 (「ひきはなし」) 의 경우와 간접정보를 갖고 있으나 심적 상태가 소원한 (「ひきはなし」) 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즉, 「らしい」가 간접 정보를 갖거나 (「ひきはなし」) 의 경우에 사용될 때가 「らしい」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특히 직접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소원한 (「ひきはなし」) 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らしい」의 기능에 대한 5가지, 첫째, 타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표현, 둘째 자신에 대해 냉정한 표현을 강조하고자 하거나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표현, 셋째 자신의 감정이나 감상을 보편화시키고자하는 표현, 넷째 책임회피를 위한 표현, 다섯째 자신이 직접 근거를 갖고 판단했으나 그 결과가 적중되지 못한 표현의 5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화자가 직접정보를 갖으며 심적으로 소원한 (「ひきなはし」) 상태일 경우에 사용되는 「らしい」의 5가지 중, 넷째에 해당되는 다음의 예문(17)은 早津惠美子(1988) 스스로도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부드러운 주장표현으로 설명하였듯이, 단지 책임 회피의 推量의 기능뿐만 아니라 比推量의 婉曲의 기능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dCollection @ chosun

(17)姑「そんなに薄着ではさむくてかわいそうじゃないか。もっと着せてやりなさい」

嫁「でも、あまり厚着をさせると汗をかいたり動きにくかったりでかえってよくないらしいですよ。」36)

이와 같은 早津惠美子(1988)에서는 「らしい」의 推量 機能의 분석은 아주 명확하였으나, 非推量의 機能인 婉曲을 직접정보를 근거로 하는 「らしい」의 推量的 機能에 소속시켜버렸기 때문에, 非推量의 機能에 대한 분석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언어를 인간이 자기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정신적, 생리적인 활동이라는 정의를 반드시 따르지 않더라도 타인이 표현한 언어에 대해 100%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심적 태도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은 더욱 난이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らしい」의 기능을 매우 세분화시켜서 분석하기 보다는 중심적인 특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推量의 근거를 話者 의존도와 他情報 의존도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らしい」의 推量의 특성을 명시해 보고자 한다.
「らしい」가 推量의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는 話者 자신의 관찰에 의존하기 보다는 타정보에 더 의존할 경우이다. 그러므로 話者 의존도보다는 他情報 의존도가 더 높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의 (18)처럼 정보원을 나타내 주는 「～の話では」나「～によると」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18)池は女中の話では疎水の水を引いてあるかで、その文字はどこからか噴き出しているらしく、池の水面は絶えず動いていた。(『夏花』123)

결국, 「らしい」의 推量의 機能은 시제의 제한 없이 話者가 言表 事態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話者 의존도보다는 他情報 의존도에 더 높다고 특성 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정보에 의한 객관적인 推定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실 또는 기정 사실을 전할 경우에 의한 婉曲 表現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36) 上掲書, p55

dCollection @ chosun

1)直接情報에 의한 객관적인 推定

「らしい」는 어떤 객관적 상황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 그 근거에 기초한 매우 확실성이 있는 推量 판단으로 주위의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토대로 한 推量인 것이다.[37] 이것은 화자 자신이 판단 대상이 되는 事態·사항을 사실이라고 단정 지어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그 현장의 상황이나 여러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때 「らしい」의 형태에 의한 판단을 推量이 아니라 推定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断定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의미로 보여 진다.

2)間接情報에 의한 婉曲

「断定」, 「伝聞」표현 그대로 써도 무방하나 그것을 문장 표면에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음으로 婉曲하게 표현하는 것이다.[38]

이것은 청자를 배려하는 부드러운 인상을 안겨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확실하고 객관적 근거가 있더라도 문장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らしい」의 특징은 시제의 제한 없이 話者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정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話者 의존도보다 他情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우선, 早進惠美子(1988)에서 제시한 「らしい」의 非推量의 기능인 전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早進惠美子(1988)에서는 다음의 (19)를 예문으로 들어 전문의 기능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39]

(19)A.「年象庁の長期予報によると、今年は梅雨明けが遅いらしいですね。」

B.「ゆうべ故郷の妹から電話があったんですが、父が入院したらしいです。」

---

37) 吉田金彦 (1971) , 前掲書, p317
38) 吉田金彦 (1971) , 前掲書, p317
39) 早進惠美子, 前掲書, p51

dCollection @ chosun

그러나 (19)의 A의 경우가, 早進惠美子(1988) 자신이 제시한 간접 정보이며, 話者의 심적 상태가 소원한 (「ひきはなし」) 推量 表現인 다음의 예문 (20)과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20) 「噂によると、ベテランのルーレット、ディーラーは、高度のテクニックを駆使して、絶対に負けないように細工することができるらしいから、所全必勝法はないのであろうが」[40]

또한 (19)의 B 역시 早進惠美子(1988) 자신이 제시한 직접 정보이며 話者의 심적 상태가 소원한 (「ひきはなし」) 推量 表現 중, 둘째에 해당되는 다음의 예문(21)과 거의 유사하다. 즉, (19)의 B에게도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것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뉘앙스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1)「少し顔色が悪いようですが大丈夫ですか。」
「いや、どうも風邪をひいたらしいですよ。でも大いとことはありません。あらmどうぞご心配なく。」

결국, 早進惠美子(1988)에서는 非推量인 伝聞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推量的 機能과 非推量的 機能의 구분이 명시되지 못하고 혼동되어 버린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仁田義雄(1992)에서의 伝聞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らしい」의 非推量의 기능으로서의 伝聞 機能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伝聞は、描き取られている内容が第三者の情報からのものである、と言った言表事態の仕入れ方に関わっているだけである。それに対して、話し手の推し量り作用や徴候の元での推し量りは、何らかの点で、話し手が判断断定作用を経た結果、産み出されたものである[41]

이상과 같은 伝聞의 정의라면 위의 (19)의 A와 B를 왜 伝聞의 기능이라고

---

40) 上掲書　p53
41)　仁田義雄、`判断から発話、伝達へ―伝聞、婉曲の表現を中心に―『日本語教育」77号, 1992年

dCollection @ chosun

부를 수 있는지 설명될 수 있겠다. 즉 (19)의 A와 B는 제 3자로부터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伝聞이 될 수 있지만, (21)은 話者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伝聞이 될 수 없고 推量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22)에서처럼 「らしい」는 推量으로도 伝聞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2)「いくらおれがあの女に気を許していたと言っても、そればかりは口にできなかったよ。」
「しかし、君がそのつもりで話さなくても、君に逢ってるとき、あの女は何気なく君から断片的な言葉を聞いているかもしれないからね。」
「。。。。。。」
「たとえば、君の金の使い方だ。これは誰だって不思議に思う。僕は君に度々主意しておいたんだが、マユミのいるバーだけは君もあの遊び方が止められなかったらしいな」
「。。。。。。」 (『地の指(下) p43)

이는 「らしい」의 非推量의 기능으로서 婉曲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인 婉曲의 정의[42]를 보더라도 推量 表現과 매우 밀접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듯하며, 다음의 仁田義雄(1992)에서의 「らしい」의 婉曲 表現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婉曲의 기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婉曲では、事態成立は話し手の認識の中に取入れられ、真なるものとして把握されている。ただ、「らしい」に婉曲では、「ようだ」のそれに対して、言語的情報によって、主に事態成立の真偽把握が可能になると、という特徴がある[43]

즉, (22)의 「らしい」는 상대(山口)의 과거의 비행이나 '真弓'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らしい」를 사용한 것은 婉曲으로 해석될 수

42) 松村明(編), 『大辞林』 三省堂, 277면에서 「文法で、事柄の実現が可能であったり予想されたりすることを、はっきり断定しないで、推量のかたちで和らげて表現する言い方」 라고 정의 했다.
43) 仁田義雄, 前掲書, 1992, p9

dCollection @ chosun

있겠다. 이는 推量이라는 뜻 자체가 확정적인 断言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らしい」의 기능에 婉曲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らしい」의 比推量의 기능은 伝聞과 婉曲으로 요약되는데, 전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婉曲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많다고 한다. 이는 婉曲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므로 단지 독백이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진위판단의 과정도 거쳐야하므로 사용시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제 4장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상호 비교 · 분석

앞장에서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각각의 용법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 보았다. 각각의 용법을 살펴본 결과 「そうだ」와「ようだ」는 樣態의 용법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ようだ」와「らしい」역시 推量 表現이 비슷하다.
또한「らしい」와「そうだ」는 전문적 성격을 지니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묶어 상호비교를 해 보고, 이를 통하여 이들 표현이 담화에서 推量의 의미로 사용될 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근거가 되는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에는 어떠한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 표현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4.1.「そうだ」와「ようだ」

推量을 나타내는 두 예문을 살펴보자.

(23) いちごのケーキは美味しそうだ。
(24) いちごのケーキは美味しいようだ。

위 예문 (23), (24)는 화자의 주관적인 推量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예문 (23)은 현재 상태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의미 용법으로 실제로 그 딸기 케이크를 시각적으로 지각하여, 먹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인상을 받은 경우에 이용하는 표현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딸기 케이크 자체에서 받은 시각을 통한 혹은 후각을 통한 직감적 인상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때에 일반적으로 「そうだ」를 쓰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예문 (24)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推量을 나타내는 의미 용법으로 누군가가 그 케이크가 맛있다고 말했다던가 그 가게에서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등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근거에 기초한 사항으로 예측할 경우에 사용된다.
다음은 「そうだ」의 지각과「ようだ」의 推量에 관한 예문이다.

dCollection @ chosun

(25)これが一番人気がありそうな商品だ。
(26)これが一番人気が会るような商品だ。

(25)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화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가 강한 것이다. 즉 話者의 주관적 직감에 의한 「지각」용법의 경우인 것이다. 그 상품이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話者의 주관적인 직감으로 불확실한 推量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26)에서의 경우는 불확실한 推量 판단이기는 하나, 그 상품이 인기가 있음을 알고 말하는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서 그 상품이 잘 팔리고 있거나 소문이 나 있다는 어떤 근거에 의한 推量 판단의 성격이 강한 느낌을 풍기는 것이다.
또한 「そう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推測 용법이 없고 미래 사항을 직관적으로 예측할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을 토대로 판단하는 육체적 체험, 고통, 감각, 어떤 근거에 의한 주관적인 推量을 나타내는데 미래 상황보다는 이미 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한 推測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よう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ようだ」와「らしい」

앞에서 설명한 「ようだ」의 의미 중 推量을 나타내는 경우와「らしい」의 용법은 상당히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 1인칭 주어에「らしい」는 사용할 수 없고 「ようだ」만이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推量 조동사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의미 사용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음으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7)この薬は良く効くようだ。
(28)この薬は良く効くらしい。
(29) 雨が降っているようだ。
(30)雨が降っているらしい。

「ようだ」는 화자가 자신의 관찰, 감각, 지식 등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된다. 이것은 그 推量的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책임이 있

dCollection @ chosun

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らしい」는 간접적인 정보(신문이나 타인의 이야기 등 어떤 매개를 통해서 얻은 정보)에 의한 推定을 진술하는 형식에 쓰인다. 제 3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책임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推量인지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推量인지에 따라 「ようだ」와「らしい」가 나뉘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話者의 심적 태도에 의해 직접정보가 간접정보로, 간접정보가 직접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떤 문맥이나 상황을 무시한 위 문장의 경우 거의 이 판단근거의 요인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판단근거를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실용적 사용에 있어서 (보다 간접정보(또는 직접정보)에 중점을 두고 推量할 때) 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文의 내용을 문제시 할 때는 당연히 정보의 직접성/간접성과 서로의 개연성을 나누게 되며 화자의 심적 태도는 판단 근거뿐만 아니라 서술내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특히 他者의 심리상태나 신체적 상태를 판단하는 推量文에 대해서 早津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他者の心理状態に対する推量は、たとえその根拠が発話主体が直接とらえた状態であるとも、一定の距離を置いたものとなりやすい。なぜなら、人の外面に現れる表情や態度は必ずしもその人の心理状態を反映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この場合、話し手の‘ひきはなし’の心理が働き、「ようだ」ではなく「らしい」が用いられる」44)

또한 田中도

「日人称の判断、客観表現、あるいは他者の心理状態にかかわる判断は判断という一つのカテゴリーの中で‘より客観的な表現であり、モダリティが低い’ので「らしい」ので領域である」45)

---

44) 早津栄三子 (1988) , 「『らしい』と『ようだ』」, 『日本語学』, 明治書院
45)田中俊子 (1988) , 「いわゆる推量のラシイとヨウダ」『東北大学日本語教育研究論集 3』

dCollection @ chosun

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他者의 심리상태는 화자의 심리상태에 의해 「らしい」가 선택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ようだ」를 사용한 용례 중에는 「ようだ」「らしい」를 치환하면 距離的, 心理的인 친근감이라고 하는 뉘앙스의 차이는 발생하나 의미상 부자연스럽지 않은 文도 있을 수 있고 의미차가 생기는 文도 올 수 있다.
「ようだ」「らしい」는 둘 다 동사의 종지형에 後接하고 명사에도 後接하는 형태적인 면에서의 차이점이 있다.
또한 吉田章夫(1971)에서는「ようだ」「らしい」모두 樣態의 조동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46], 森山卓郎(1989)에서는 「認識モード」「そうだ」를 제외시켰지만,「ようだ」와「らしい」는「認識モード」 중 상황파악에 소속시켰다. 이러한「ようだ」「らしい」의 의미상 공통점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데 동시에 사용되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例えば、大きなリュックが一つ部屋に置いてある場合、
(31)部屋にリュックが置いてある。彼が昨日から帰ったようだ。
(32)部屋にリュックが置いてある。彼は昨日山から帰ったみたいだ。
(33)部屋にリュックが置いてある。彼は昨日山から帰ったらしい、のように言うことができるが～
그러나 만약, 「そうだ」를 사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비문이 될 것이다.

(34)部屋にリュックが置いてある。彼は昨日山から帰りそうだ。

단, 「現象描写文」[47]의 경우라면 言表 事態를 언급하거나 전달하는 표현은 가능하므로「そうだ」「ようだ」「らしい」모두가 다음의 (35)처럼 동시 사용되어도 비록 의미상의 相異点은 있더라도 그 어느 쪽도 비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35) A.今は寒そうだ。

---

46) 松村明 (編) , 前掲書、1971, 892
47) 仁田義雄、前掲書、1989、20면에서 現象描写文을 화자의 준변에 존재해 있는 상황이나 현상을 묘사하여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現象描写文의「が」격에 오는 명사는 3인칭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1,2인칭의 명사가 올 경우는 화자와 청자는 제 3자적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現象描写文의 조건을 제시했다.

dCollection @ chosun

B.今は寒いようだ。
C.今は寒いらしい。

결국, 「そうだ」가 사용되는 문장은
仁田義雄(1989)의「推量系の判断のもダリティ」가 없는「現象描写文」에 가깝지만, 「ようだ」「らしい」가 사용된 문장은
「推量系の判断のモダリティ」가 있는 「判定文」[48]에 해당될 것이다.

4.3.「らしい」와「そうだ」

「婉曲」을 나타내는 「らしい」와 「伝聞」을 나타내는 「そうだ」에 대해 상호 비교하여 보면

(36)金子さんの話によるとあの人は結婚したらしい。
(37)金子さんの話によるとあの人は結婚したそうだ。

예문 (36)의「らしい」는 '가네코씨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으로 얻은 믿음가는 정보로 그것을 근거로 내린 推定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판단의 근거가 화자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 「らし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화자 자신이 직접 확신하는 경우와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자기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의식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37)의 「そうだ」는 발화시점에서 보면 다른 제3者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진술함으로 「らしい」보다는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 推量 조동사의 推量의 기능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48) 上掲書, 24면에서 판정문은, 言表 事態에 대한 話者의 推量이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판단할 내용이 나타내주는 것에 대하여 話者의 판정을 진술하는 문장이라고 정의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첫째, 推量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推量의 근거를 他情報에서 갖는 「ようだ」「らしい」로 구분할 수 있고, 「そうだ」는 그들의 중간적인 위치에 둘 수 있겠다.
둘째,「ようだ」와「らしい」의 상호 비교 결과 주관성의 순위는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순이 된다.
셋째, 「ようだ」「らしい」를 사용한 문장은 '判定文'에 해당되지만 「そうだ」를 사용한 문장은 '現像描寫文'에 가깝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非推量의 기능 또한, 推量의 기능을 비교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非推量의 기능에 대해 비교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推量조동사의 非推量 기능의 개별적인 特性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 推量 조동사 모두의 非推量의 기능을 살펴본다면, 「そうだ」「ようだ」「らしい」는 婉曲의 표현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의 婉曲性은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이미 仁田義雄(1992)에서 지적되어있다.
즉「ようだ」가 첫번째이며, 그 다음으로「らしい」, 마지막으로 「そうだ」의 순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전문과 婉曲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ようだ」와「らしい」만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문의 기능은 「ようだ」「らしい」양쪽모두 등과 「～の話では」「～によると」자주 사용되는 점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러나 仁田義雄(1992)에서는「らしい」보다 婉曲의 기능에 있어서는 단연「ようだ」가 중심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らしい」にあっては、徵候の元での推し量りと伝聞的表現が連続し、伝聞性を通して、婉曲表現が生じることになる。また伝聞性を経由することが、「ようだ」に較べて、婉曲表現が少なくしている。[49]

결국,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推量 조동사의 非推量의 기능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첫째, 非推量의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모두 婉曲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

49) 仁田義雄、前掲書、1992、p7

dCollection @ chosun

둘째, 婉曲성의 강도는 「ようだ」－「そうだ」－「らしい」순이 된다.
셋째,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공통적인 伝聞의 기능은 양쪽 모두 「～の話では」「～によると」등과 자주 사용되므로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

dCollection @ chosun

제 5장. 결론

推量 表現에 사용되는 것들 중에는 조동사로 취급되지 않는 것과 취급되는 것 등 그 규정이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테두리에서
「そうだ」「ようだ」「らしい」만을 推量 조동사로 규정하고 선행 연구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특히 寺村秀夫(1984)를 기준으로 推量 조동사에 대한 연구의 관점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橋本進吉(1948)부터 寺村秀夫(1984)까지의 推量 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推量 조동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指定의 조동사 「だ」나 希望의 조동사「たい」와 같이, 별개의 조동사인 것처럼 推定의 조동사「らしい」, 比況의 조동사「ようだ」, 様態의 조동사「そうだ」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ようだ」와「らしい」를 様態의 조동사라고 명명하는 등 推量 조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일된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특히 寺村秀夫(1984)에 이르러 개별적 관점에서만 연구되어 온 推量 조동사에 대해 指定, 比況, 様態의 조동사를 일단 推量 조동사라고 전제하고 다시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寺村秀夫(1984)의 영향으로 그 후 早津惠美子(1988), 森田良行(1988), 森山卓郎(1992), 仁田義雄(1992) 등에 의하여 종합적인 관점에 입각한 推量 조동사의 特性, 機能, 用法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 성과가 이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종합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推量 조동사라고 전제한 후에 다시 각각의 기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상 推量의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와 非推量의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로 구분하여 각 推量 조동사의 기능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推量의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의 각 推量 조동사를 주로 寺村秀夫(1984), 早津惠美子(1988)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推量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를 기준으로 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즉, 言表 事態에 대한 推量의 근거를 話者 자신의 관찰에 두는가와 他情報에 두는가의 기준으로 각 推量 조동사는 각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그리고 非推量의 기능은 森山卓郎(1992), 仁田義雄(1992) 등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らしい」는 伝聞과 婉曲, 「ようだ」는 伝聞과 婉曲,「そうだ」는 婉曲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분석된 각 推量 조동사의 推量 및 非推量의 기능을 상호 비교해 본다면 전체적이며 포괄적인 推量 조동사의 기능상이 특성도 파악하고 동시에 각 推量 조동사의 개별적인 기능의 特性 또한 명백하게 명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そうだ」「ようだ」「らしい」는 推量 조동사로 推量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이는 작은 개체로, 일단 推量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推量의 기능을 갖을지라도 각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특성 때문에 指定이나, 比況, 様態 등의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推量 조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推量의 기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非推量의 기능 역시 갖는다고 간추려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는 각 推量 조동사에 대한 개별적인 관점의 연구결과로 인하여 특히 「そうだ」「ようだ」「らしい」가 본래 推量 조동사였음에도 불구하고 推量의 기능이 소외시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미약하나마 보충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각 推量 조동사의 推量의 기능은 물론 非推量의 기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推量조 동사의 보다 적절한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본고의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으나 「ようだ」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みたいだ」와「だろう」의 부정표현으로만 취급되어온「まい」의 기능분석도 보다 완벽한 推量 조동사의 기능연구를 위해 필요할 것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추가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본다.

dCollection @ chosun

<参考 文獻>

橋本進吉(1964)，『国語法研究』，岩波書店
国立国語研究所(1978)，『日本語文法（上）』，大藏省印刷局
鈴木重幸（1972），『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金田一春彦(1979)，「不変化助動詞の本質」，『日本の言語学』第3券，服部四郎 外，大修舘書店
国際交流基金(1980)，『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Ⅳ，文法Ⅱ』
北原保雄（1981），『日本語助動詞の研究』，大修館書店
吉田金彦(1981)，『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明治書院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1』くろしお出版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2』くろしお出版
神尾昭雄(1985)，「談話における視点」，『日本語学』4券 明治書院
森山卓郎（1988），『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早津恵美子(1988)，「らしい」と「ようだ」，『日本語学』，明治書院
仁田義雄（1989），現代日本語のモダリティの体系と構造，『日本語のモダリティ』，仁田義雄，益岡(編)，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1991），『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
益岡陸志（1991），『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石田照雄（1993），推量の認識と構文，『国語学』，174集
紙谷栄治（1995），助動詞「ようだ」「らしい」について，『日本語の研究』，宮地 裕（編），明治書院
金良宣(1999)，「現代日本語における推量表現」，課程博士学位論文，関西外国語大学
リグス秀美（2007），「推量の助動詞ソウ，ミタイ，ダロウ，ラシイ，ヨウダの構造」，『言語学と日本語教育Ⅴ』，くろしお出版
이남순(1998)，『시제・상・서법』，월일출판사
배준호(1986)，『推量の助動詞の分析ー韓国語での現れを中心に』『외대논집』，부산외대
고은진(1997)，「추량표현에 관한 고찰：‘ようだ’‘らしい’와 한국어와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dCollection @ chosun

김양선(1996), 「추량 조동사의 기능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김동욱(1997), 「「だろう」와「ようだ」「らしい」의 차이」,「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김동욱(1999), 「일본어 추측 형식들의 의미차이에 관한 분석 진위판단이라는 관점에서」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윤상실(1998), 「일본어의 전문 형식「そうだ」의 고찰」,『일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조남성(1999), 「추량표현의 오용분석」,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장진아(1998), 「일본어 문말 추량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수웅(1985), 「추량표현을 나타내는 현대 한・일 조동사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최병규(1999) 「일본어의 추량표현 분석에 관한 고찰」, 일어교육, 제 12집

d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日語教育	학 번	20048157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나 지 현 한문: 羅 智 賢 영문: Na Jee-Hyun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삼라마이더스 102-1005				
연락처	(062)514-4055, 019-9759-4055 E-MAIL: jeehyunna@hotmail.com				
논문제목	한글 : 現代 日本語 推量表現에 관한 연구 - そうだ, ようだ, らしい 中心으로 - 영문 :A Study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in Japanes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7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dCollection @ chosun